

충남도의회, 지구 위한 바른 행동 ‘NO 플라스틱’ 실천 나선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NO 플라스틱’ 캠페인에 나섰다. 충남도의원 42명은 지난 9월 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폐회 후 ‘NO 플라스틱’ 구호와 함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NO 플라스틱’ 캠페인은 의회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 또는 종이팩과 같은 대체 소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도의회는 이날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종이팩과 사탕수수 기반의 식물성 뚜껑으로 포장된 물인 ‘기쁜물’을 후원받기도 했다. 특히 도의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인 ‘고고(GOGO) 챌린지’에도 동참한다. 고고 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명칭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하고’, 해야 할 한 가지 실천을 하고‘에서 따온 말이다. 챌린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약속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SNS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Go’, ‘친환경 제품 사용 늘리기Go’ 캠페인



을 추진하며,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했다. 우리의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플라스틱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

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제 상식이 됐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콕’ 생활이 계속 되면서 플라스틱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약 830만개의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자원 재활용은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의회는 캠페인 이후 텀블러 등 다회용기나 사탕수수 섬유 등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홍보물 등을 사용하며 탈플라스틱을 실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각종 자원 순환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왔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아 우리 스스로 환경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순간의 편리함을 버리고 지구를 위한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NO 플라스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①



1기후위기 선제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는 김명선 의장
2 ‘NO 플라스틱’ 캠페인